

# 생애주기별 기회로의 이동이 대졸 청년 임금 소득에 미치는 영향\*

최호권\*\* · 박인권\*\*\*

## The Impact of Moving to Opportunity Across Life Stages on College Graduates' Wage Performance\*

Ho Kwon Choi\*\* · In Kwon Park\*\*\*

**국문요약** 이 연구는 개인의 생애주기별 기회의 지역 간 격차와 삶의 성과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기회가 풍부한 곳'으로의 이동이 개인의 임금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제공하는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GOMS, Graduate Occupational Mobility Survey)'를 기반으로 성향점수매칭(PSM, Propensity Score Matching) 방법을 활용하여 지역 이동 이전의 삶의 경험이 유사한 개인을 선별하여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생애주기를 고등학교 진학 이전, 대학교 진학 시기, 취업 시기 등으로 분류한 후, 생애주기별 지역 이동과 진학, 취업, 임금 소득 간 경로 모형을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지역 이동이 개인의 경제적 성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생애주기, 즉 기회 차이에 따른 영향이 가장 불평등하게 나타나는 생애주기는 대학 진학 시기로 나타났다. 그리고 기회가 풍부한 곳으로의 이동은 이후의 삶에 누적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고등학교 입학 이전 시기의 이동성 또한 이후 중심부에서의 삶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마지막으로, 부모의 소득은 그 자체로도 영향력이 있지만, 지역 이동과 결합하여 자녀 세대에게 부를 이전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국가가 비수도권 대학 육성을 통해 대학 중심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지역 이동의 제약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시사한다.

**주제어** 임금 기회, 지역 격차, 지역 이동, 성향점수매칭, 경로분석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impact of moving to an opportunity-rich area on an individual's wage income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regional disparities in opportunities throughout a person's life cycle and life outcomes. Based on the Graduate Occupational Mobility Survey (GOMS) provided by the 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individuals with similar life experience prior to regional mobility were selected and analyzed using the Propensity Score Matching (PSM) method. Specifically, the life cycle was classified into stages such as

\* 이 논문은 2023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대한교통학회 공동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작성하였으며,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2S1A3A2A01089625).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박사과정(주저자, baety1234@snu.ac.kr)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교수, 환경계획연구소 겸무연구원(교신저자, parkik@snu.ac.kr)

pre-high school, university entrance period, and employment period. Then, a path model was established to analyze regional mobility, education, employment, and wage income by life cycle stage. The analysis results indicate that the life cycle stage where regional mobility had the greatest impact on an individual's economic performance, that is, the stage where the impact of opportunity disparities was most unequal, was the university entrance period. Additionally, moving to an opportunity-rich area was a critical factor that cumulatively affected subsequent life. Hence, pre-high school mobility was also noteworthy as it induced life in the central area later on. Lastly, while parental income itself was influential, but when combined with regional mobility, it could act as a means of transferring wealth to the next generation.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state should strive to alleviate the regional imbalance around universities by fostering universities outside the capital region and reduce the possibility of the influence of parents' socio-economic background on regional mobility.

**Key Words:** wage disparity, regional disparity, regional mobility, propensity score matching, path analysis

## 1. 서론

우리나라는 각 지역에 불균등하게 분포한 자원과 그 결과 발생하는 불균등한 삶의 기회를 바로잡기 위해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다양하게 시행하고 있다. 자원의 불균등 분포 자체는 어쩔 수 없지만, 이로 인한 심각한 기회의 불균등은 정책적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Galster와 Killen(1995)이 주장한 ‘기회의 지리(GO, Geography of Opportunity)’ 이론은 개인의 특성 외에도 주변 이웃 또는 더 넓은 지역에 존재하는 자원이 ‘기회’가 되어 사람들의 삶의 결과물에 영향을 미침을 주장한다(Galster & Killen, 1995). 즉, 지역 간 기회의 격차가 존재하는 경우 지역에 따라 개인 삶의 성과가 달라질 수 있다. 특정 시점의 선택이 삶의 궤적에 누적적으로 영향을 미쳐 차별적 삶의 결과를 가져온다면 기회 구조의 차별적 분포를 개선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진다.

기회의 지리 이론에 따른 다른 문제는 지리적 불평등에 의해 다양한 차원의 불평등이 재생산된다는 점이다. 최상위 계층에 속한 사람들은 양질의 사회적·경제적 기회가 제공되는 지역에 거주하여 그들의 우위를 강화하고 후세에도 이를 이어가는 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열악한 서비스와 기회를 가진 지역에 머물러 계층 상승의 기회를 얻지 못할 수 있다(Galster &

Sharkey, 2017; 플로리다, 2018). 거주지역에 따라 삶의 기회에 차이가 있고, 기회 격차가 다양한 불평등과 결합하여 그 불평등을 재생산한다면 문제이다. 이는 ‘지역에 상관없이’ 전국이 개성 있게 살고루 잘 사는 사회를 구현하려고 하는 균형발전 정책이 정당하고 필요함을 시사한다.

우리나라에서 균형발전 정책이 논의되고 시행된 지는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균형발전 정책의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더욱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구양미, 2021; 소진광, 2020; 차미숙 외, 2023). 다원화하는 사회에 맞춘 더욱 실효성 있는 균형발전 정책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는 다양해지고 있는 기회 구조에 대해 더욱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논의 중 하나는 기회의 불균등 분포가 개인의 생애주기에 따라 어떻게 누적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것이다. 즉, 개인의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기회’가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지, 이러한 기회의 차이가 개인의 삶의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구조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현재 우리나라에서 ‘개인의 생애주기 중 어떤 시기의 기회가 지역 간 격차가 큰가, 그 기회의 차이는 개인의 생애주기에 어떻게 누적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규명하고

자 한다. 다만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기회가 풍부한 지역에서 삶을 영위하였을 경우와 기회가 부족한 지역에서 삶을 보냈을 경우 각각의 삶의 결과를 알아야 한다. 그러나 이는 동시에 발생할 수 없는 반사실적(counterfactual) 결과에 해당하므로 이를 관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와 같은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 이동’의 관점을 활용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유사한 궤적의 삶을 살아오다 ‘기회가 풍부한 지역으로 이동’한 개인과 ‘이동하지 않은’ 개인을 비교함으로써 지역 간 기회의 격차와 그에 따른 삶의 성과 및 궤적 변화를 관찰한다. 이동 여부에 따라 성과 차이가 난다면 이는 곧 지역 간 기회 격차의 유의미한 효과를 의미한다. 유사한 삶의 궤적을 이 연구에서는 ‘유사한 지역에서의 삶’으로 정의하고, 이동 시점 이전에 유사한 지역에서 머문 개인을 비교한다. 구체적으로 지역 격차와 관련한 많은 선행연구 및 우리나라 균형발전 정책에서 기회가 풍부한 곳으로 인지하고 있는 ‘수도권’으로의 이동을 기회로의 이동으로 정의하고 논의를 진행한다.

그러나 이동 여부가 순전히 외생적인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 개인의 과거 삶의 궤적이 결과로 나타난 것일 수 있으므로, 이 과거 삶의 궤적 효과를 통제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개인의 과거 성장 과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되는 요인을 활용한 성향점수매칭(PSM, Propensity Score Matching) 방법을 통해 개인적 성장 배경의 차이를 통제하였다. 성향점수매칭의 과정을 통해 과거의 삶이 누적되어 특정 시점의 이동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모형의 내생성(Endogeneity) 및 표본선택편의(Sample Selection Bias) 문제 또한 해소할 수 있다. 이 연구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같이 개인에게 이미 주어진 출발점의 차이도 고려함으로써 지역의 기회구조가 기존의 불평등과 결합하는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다양한 삶의 성과 중 이 연구에서는 경제적 삶의 성과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임금’이라는 개인의 경제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기회에 대해 살펴보고, 그러한 기회는 ‘지역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에 관한 이론 및 선행연구를 살펴본다. 이에 더하여 기존의 불평등과 지역이 결합하는 양상을 탐색한다. 이를 바탕으로 한 실증 분석에서는 특정 시점의 이동이 향후 생애주기와 성과에 미친 영향과 그 과정에서의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의 영향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서구적 맥락에서 주로 논의되었던 ‘기회로의 이동’을 한국적 맥락에서 탐색하고, 연구에 따라 다양하게 포착되는 이동의 이점을 구조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기회’와 관련한 다양한 이론에 새로운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생애주기에 따른 실효성 있는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 2. 이론 및 선행연구

### 1) 공간과 삶의 성과, 그리고 기회의 지리

지역 간 다양한 기회의 격차가 존재하기에 지역을 이동함으로써 개인의 경제적 성과를 제고할 수 있다는 전제는 기회의 지리 이론에 기반한다. 기회의 지리 이론은 불평등에 대한 논의에서 성별, 인종, 가족 배경 등 개인적 특성에 주목하였던 기존 시각에서 벗어나 개인을 둘러싼 공간이 가지는 기회 구조에 주목한 이론이다(Galster & Killen, 1995; Galster & Sharkey, 2017). 기회의 지리 이론가들은 개인적 특성이 동일하더라도 개인을 둘러싼 지역적 환경에 따라 상이한 삶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음을 주장하며, ‘어디에 사는지’를 주목하였다. 기회의 지리 이론은 공간적 기회 구조가 개인과 상호작용하는 현상인 ‘과정(process)’과 이로 인해 형성한 특정 선택에 대한 결과를 뜻하는 ‘전망(aspect)’을 기회라 말하며 논의를 전개한다. 기회 구조에 영향을 받아 개인의 특성이 정해지고(과정), 이를 통해 특정 결정에 대한 예상되는 결과(전망)를 형성함으로써 선택이 이루어진다. 이 선택은 누적되어 삶의 궤적을 형성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삶의 결과로 이어진다고 역설한다. 기회의 지리는 불평등과 공간의 관계

를 기존 규범적·이론적 논의를 넘어 실증의 영역으로 이끌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이승욱 외, 2023).

그렇다면 개인의 삶의 결과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공간이 가지는 기회 구조’는 무엇인가? 기본적으로 공간 내에 존재하는 모든 자원은 공간적 기회 구조가 될 수 있는데(겔스터, 2023: 271), 공간적 기회 구조가 개인에게 영향을 주는 메커니즘을 이해함으로써 이에 대해 더욱 구체적으로 규정할 수 있다. 공간의 다양한 스케일을 고려하는 기회의 지리 이론에 따라 이웃범위의 공간효과인 이웃효과(neighborhood effect)와 지역 범위(regional scale)의 기회 구조에 관한 논의를 살펴 보았을 때, 공간적 스케일은 상이하지만 유사한 내용의 메커니즘을 발견할 수 있다.<sup>1)</sup> 사회적 상호작용, 환경적, 지리적, 제도적 메커니즘이 그것이다.

공간의 내생적인 사회적 과정을 뜻하는 사회적 상호작용 메커니즘은 이웃과의 접촉을 통해 개인의 행동, 태도, 열망 등이 변화하거나(사회적 전염), 공간에 존재하는 규범적 역할로 인해 일정 역할을 수행할 것을 압박받는 것(집합적 사회화)을 의미한다. 이 밖에도 주변에 사회·경제적으로 성공을 거둔 자들로 인해 상대적 열등감을 느끼거나(상대적 박탈), 공간에 존재하는 한정된 자원을 이용함에 있어 경쟁 관계를 형성(경쟁)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는 공간에 존재하는 사회적 관계에 의해 형성되며(사회연결망), 이러한 상호작용 효과는 직접적인 접촉에 의하거나, 부모를 통해 간접적으로 형성되기도 하는데(부모의 매개), 공간에 연쇄적으로 확산되는 효과를 보인다.

다음으로 환경적 메커니즘은 개인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연적·인위적 공간 속성을 의미한다. 재산이나 사람이 위협에 처해있다는 위협을 느끼게 하는 환경이나, 실제로 부당한 희생이 발생했던 환경(폭력 노출), 스트레스를 느끼게끔 하는 불량한 건조환경(물리적 환경), 유해한 오염원의 존재(독성 노출) 등으로 인해 개인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이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한다.

지리적 메커니즘은 네 개의 분류 중 공간성이 가장 강한 메커니즘으로 오직 공간상, 지리상의 위치로 인해 거주자들의 생애 과정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내

포한다. 예를 들어 필요로 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도달하기 어려운 지리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거나, 지역 내에 적절한 재화가 없거나(공간적 불일치), 지역의 공공서비스가 적절하지 않아서 다른 지역의 거주자와는 상이한 삶의 경험으로 인해 차별적 삶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음을 제기한다.

마지막으로 제도적 메커니즘은 동네에 존재하는 제도적 자원에 의해 개인 삶의 성과에 차이가 생길 수 있음을 의미한다. 어떤 사람이 특정 공간에 거주하지는 않더라도 해당 공간의 거주민에 특정 서비스를 매개하는 역할을 하거나, 공간의 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자원을 통제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제도적 권력을 가진 개인이 특정 지역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거나, 낙후 지역을 낙인 찍음으로써 제도적 지원을 막을 수도 있다. 또한, 특정 재화와 관련한 시장을 형성하거나, 규제함으로써 특정 공간 거주자들의 기회에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상기한 내용을 바탕으로 공간의 기회 구조 개념을 도출할 수 있다.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때와 규범 모델의 존재, 정신적·신체적 위협을 가하지 않는 환경, 필요 서비스와 기관의 존재와 적절한 접근성, 적절한 제도적 지원을 통해 개인 삶에 긍정적 영향이 발현되게끔 하는 지역의 자원과 상황이 곧 공간의 기회 구조이다.

## 2) 임금 소득에서의 생애주기별 기회

이와 같은 공간에 내재된 기회 구조를 토대로 이 연구에서 주목하고 있는 삶의 성과인 개인의 임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생애주기별 기회를 탐색한다. 개인의 생애주기는 출생 시기와 그 이후 초·중등 교육을 받는 성장기, 대학이라는 고등교육의 시기와 졸업 이후 경제활동을 하는 직장 시기를 모두 포괄한다. 이를 임금을 창출하는 시기와 임금 창출을 준비하는 시기로 구분하고, 임금 생산과 관련한 논의를 통해 기회 구조를 살펴본다.

인적자본이론은 임금의 준비 시기와 창출 시기에 모두 적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임금과 관련한 기회 구조

를 설명하는 이론으로 적절하다. 인적자본이론에서는 교육이나 직업훈련 등을 통한 투자가 인적자본의 축적으로 이어지고, 인적자본량이 개인의 소득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Becker, 1964). 고용주는 개인을 고용할 때, 높은 인적자본이 형성된 개인을 고용하려 할 것이고, 개인은 고용가능성과 임금을 제고하기 위해 인적자본을 향상시키려 할 것이다. 인적자본이론가들은 개인의 인적자본이 교육 투자를 통해 상승할 수 있다는 교육 투자를 통해 제고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임금 준비 시기의 개인이 높은 수준의 교육을 추구하는 행태를 설명한다.

반면, 신호이론(signal theory), 선별 가설(screening hypothesis)은 이와 다른 가정을 주장한다. 교육은 사람들의 능력을 제고하지 못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을 가려내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Spence, 1974; 남춘호, 2003 재인용). 교육의 질보다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에 중점을 두어 능력은 이미 주어진 외생적인 것이고, 이 능력을 통해 진학한 사회적 위세가 좋은 교육기관의 졸업장을 통해 본인의 능력을 알린다고 주장한다.

분단노동시장이론은 임금을 창출하는 시기의 임금 격차를 설명하기에 적합하다. 이 이론은 노동시장이 분단되어 있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Reich et al., 1973). 노동시장은 단일노동시장이 아니고 1차와 2차 시장으로 분절되어 있으며, 서로 다른 메커니즘으로 작동하는 두 시장 간에는 임금 격차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1차 노동시장은 고임금, 고용안정, 내부 승진 기회, 양호한 근무조건을 특징으로 하지만, 2차 노동시장은 반대로 저임금, 고용 불안정, 열악한 근무조건으로 대표된다. 개인이 어느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느냐에 따라 임금에 격차가 생긴다는 것이다.

이상의 임금 격차를 설명하는 이론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높은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높은 인적자본을 형성하기 위해 또는 본인이 높은 인적자본을 가진 개인임을 알리기 위해 질적으로 우수한, 또는 위세가 좋은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를 통해 안정되고 높은 임금을 제공하는 우수한 노동시장에 진입해야 한다.

공간 구조의 메커니즘과 임금 생산 이론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우수한 교육기관이 존재하여 인적자본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공간, 우수한 교육기관에 진학할 수 있게끔 긍정적 역할을 하는 이웃의 구성원과 역할 모델이 있는 공간, 양질의 노동시장으로 접근이 용이한 공간이 임금소득과 관련한 기회가 풍부한 공간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 3) 임금 소득의 재생산

기업은 높은 인적자본을 가진 개인을 고용하기 위해 그들이 많은 곳에 위치하려 할 것이다. 그리고 개인은 현장성을 높이고,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높은 임금을 주는 기업 주위에서 인적자본을 형성할 것이다. 그 결과 특정 공간에는 양질의 인적자본 향상 기회가 풍부해진다. 즉, 양호한 기업과 풍부한 기회 구조, 양질의 인적자본을 가진 개인은 특정 지역에 집중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집중 현상은 고임금 창출을 위한 구조적 경로를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적 경로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결합을 통해 부의 불평등 재생산 구조를 형성할 수 있다. 부모의 배경과 자식 세대의 성취와의 관계를 살펴보는 이론은 교육을 중요한 매개자로 인식하고 있다. 교육과 불평등의 관계에 대한 대표적 논의인 갈등론과 기능론 모두에서 교육이 불평등을 재생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기한다.<sup>2)</sup> 이 연구는 교육의 갈등론적 관점 이론 중 ‘효과적으로 유지되는 불평등(EMI, Effectively Maintained Inequality) 이론’이 한국 사회에서 작용한다는 시각을 견지한다. EMI 이론은 교육이 양적으로 포화상태가 되었을 때, 불평등이 완화될 것이라고 주장(Raftery and Hout, 1993)하는 ‘최대한으로 유지되는 불평등(MMI, Maximally Maintained Inequality) 이론’과 달리 양적으로 포화상태가 되어도 동일 시기에서 양질의 교육기회를 찾음으로써 계속해서 불평등을 재생산할 것이라고 주장(Lucas, 2001)한다. 대학이라는 고등교육으로의 진출이 임금 프리미엄을 창출하던 과거 시기와 달리 같은 단계의 고등교육 중에서도 특정 대학, 특정 직종으로의 진입으로 차별

화된 임금을 창출하는 현재 한국 사회의 모습에 EMI 이론을 적용할 수 있다.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지위 획득에서 차지하는 교육의 중요성이 더 커질 것이라는 주장과 직업지위 획득에 있어서 학력과 같은 업적 요인이 귀속 요인보다 중시될 것이라는 주장(남춘호, 2003)은 향후 교육 관련 요인, 그 중 학력을 넘어 학벌이 사회적 성공을 보장하는 가장 유력한 수단임을 나타낸다.

앞서 살펴본 내용으로 미루어볼 때, 교육적 기회 또한 지역의 기회 구조 안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부모 세대는 기회가 풍부한 지역에 거주하며, 지역의 교육 기회 등 다양한 기회를 활용함으로써 자식 세대로 지위와 계층을 재생산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기회의 땅으로의 이동 또한 부모 세대가 선택할 수 있는 수단으로 예상한다. 이동을 통해 다양한 이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자명하나, 이동은 비용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모두에게 공평하지 않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동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사람들에게 지역 간 기회 격차는 부모 세대의 지위와 계층을 자식 세대로 재생산하는 과정을 매개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지역에 따라 임금에 차이가 날 수 있음을 생애주기별로 규명한 연구는 다양하다. 우선 직장과 관련한 요소가 임금에 미친 영향을 규명한 연구들은 수도권에서 대체로 임금이 높게 나타남을 밝혔다. 이는 높은 임금과 연결되는 직종, 고용 특성, 근로조건, 안정성 등을 갖춘 사업체가 수도권 지역에 더욱 많이 분포해 있기 때문으로 받아들여졌다(이종수, 2017; 김우영, 2012; 허식, 2007; 이원호, 2002). 그러나 노동시장의 구조적 특성 요인이 아닌 상이한 인적자본 수준, 숙련 수준에 따른 차별적 보상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근로자 사이의 임금 격차의 주된 원인으로 분석되기도 하였다(김민영·임업, 2017; 이번송, 2009). 이에 더하여 지역마다 생활비에 차이가 있고, 공기업의 비중, 노동조합의 유무 등과 같은 제도적 요인에도 차이가 있기에 지역 간 임금 격차가 발생한다는 것이 밝혀졌다(허식, 2007).

이는 우리나라에서 산업군, 직종 등 노동시장의 구조적 특성, 제도적 요인 등은 지역에 내재된 임금 기회 구조임을 의미하고, 동일한 질의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지역별 차별적 보상 또한 지역의 기회 구조이기에 이를 분리하여 포착하기 위해 인적자본과 숙련도를 통제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대학의 소재지에 따른 임금 격차 요인을 보았을 때, 수도권, 그중에서도 서울의 대학 졸업자가 높은 임금 성과를 내는 것으로 밝혀졌다(류장수, 2005; 오호영, 2007; 김희삼, 2010). 이들 연구에서는 수도권 대학이 인적자본 형성에 유리하며, 졸업 이후 수도권 직장을 취업하는 경로의 의존성을 유발한다는 인적자본이론과 서울의 대학이 위세가 높다는 선별 이론을 통해 이러한 현상을 바라보고 있다. 이는 대학은 그 자체로 고임금 소득을 위한 내재된 기회 구조로 볼 수 있지만, 대학은 지역뿐만 아니라 설립 유형도 성과에 차이를 가져옴이 밝혀져(권혁기·김병주, 2021), 향후 기회 구조에 따른 변수 설정 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향후 중심성이 높은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하기 용이한 곳에서 교육을 받은 개인이 더욱 높은 경제적 성과를 도출하는 경향이 있음을 밝힌 연구(김승정 외, 2024; 류장수, 2015; 공희경·박경현, 2020)는 고등학교 시절로 대리되는 성장기 거주지의 중요성을 밝히고 있다. 한국의 지역 간 교육격차는 주로 도시와 농촌 간에 존재하여 도시에 교육 기회가 더 많고, 이러한 교육격차로 인해 공간적 계층 분화가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김경근, 2005; 최은영, 2004). 선행 연구들은 지역에 따른 기회의 차이와 기회의 차이로 인한 차별적 삶의 결과를 규명하였으나, 특정 시점 기회의 차이와 누적적인 삶의 궤적에 대한 관심은 부족했다. 김승정 외(2024)의 연구에서는 특정 시기에 특정 지역에 머무르는 것의 누적적 효과를 다루었다는 점에서 이 연구와 유사하나, 기회를 찾아 이동하였을 경우를 다룸으로써 생애주기에 따른 지역의 차별적 효과를 규명하는 이 연구와는 차이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지역 간 기회 격차를 확인하기 위해 지역 이동에 따른 결과 차이를 살펴본다. 기회가 풍부한 지역으로의 이동은 서구에서 빈곤 가정 자녀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활용되었을 만큼 개인 삶의 성과를 제고하는 수단으로 주목받았다. 하지만 이동 특성, 시기 등에 의해 결과가 일관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었다(Leventhal and Brooks-Gunn, 2003; Bergman et al., 2019; Briggs et al., 2008; Chetty et al., 2016). 서구의 경우와 달리 한국에서 진학, 이주 등으로 인한 지역 이동은 대체로 임금에 긍정적인 결과를 영향을 도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이상호, 2010; 최광성 외, 2018; 박재민, 2010; 이찬영·이흥후, 2016). 선행 연구들은 대부분 한 시점의 지역 이동에 주목하였다는 점에서 이 연구와 차이가 있다. 조동훈(2020)의 연구가 각 시기별 이동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는 점에서 유사하나, 이동 양상에 따라 유형을 나누어 차별적인 효과를 분석하였고, 특정 이동이 향후 삶의 궤적에 누적적 영향을 미치는 점에 대해서는 비교적 관심이 부족하였다.

다음으로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임금의 관계를 확인한 연구는 대체로 가족의 경제적 배경이 임금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고한다(김승연·박민진, 2021; 이용호 외, 2021; 권혁기·김병주, 2021). 이러한 현상은 최근 들어 더 뚜렷해지고 있음이 보고되는데(김승연·박민진, 2021; 이지은·정세은, 2023), 그 원인으로 가정 배경이 교육 성취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높은 임금을 유발한다는 의견(김승연·박민진, 2021; 상명성·문영만, 2024)이 주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개인의 노력으로 선천적 인적 속성을 극복할 수 있다는 주장(권혁기·김병주, 2021)도 있고, 노력과 무관하게 부모 배경변수가 임금 불균등을 설명한다는 주장도 있는 등 일관적이지 않은 연구 결과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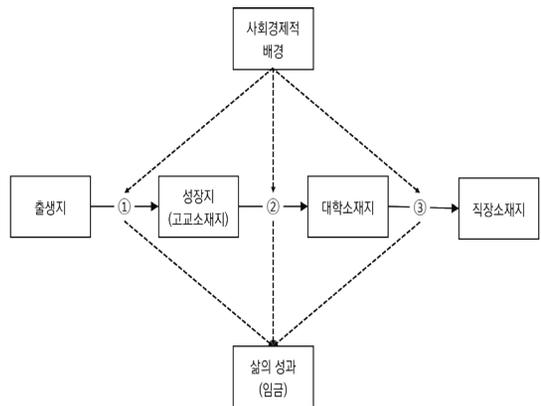
지역별 임금 격차를 유발하는 기회의 차이를 실증한 다양한 선행연구들은 중심성이 큰 지역에 이들 기회가 풍부함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중심성이 큰 지역, 즉 수도권으로의 이동을 곧 ‘풍부한 기회’로의 이동으로 간주하고, 이어지는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특히 기회로의 이동의 관점에서 특정 시점의 지역 이동이 이어지는 삶의 궤적에 누적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경제적 삶의 결과인 임금이 차별적으로 나타남을 규명하고자 한다.

### 3. 연구설계

#### 1) 분석대상 및 자료

다양한 삶의 기회가 풍부한 곳으로의 이동이 개인 삶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생애주기에 따라 살펴봄으로써 지역 간 기회의 격차를 확인하는 이 연구의 기본 모형은 다음과 같다(그림 1 참조). 청년의 생애주기에서 대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동 시기인 고등학교 진학 이전 시기 이동(출생지→성장지), 대학 진학 이동(성장지→대학 소재지), 취업 이동(대학소재지→현 직장 소재지)의 각 시기마다 지역을 이동하는 것이 개인의 삶의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개인의 삶의 성과는 다양하게 고려할 수 있지만 이 연구에서는 ‘시간당 임금’이라는 노동시장 성과를 통해 확인한다.

‘기회가 풍부한 지역으로의 이동’의 효과를 살펴보고자 하는 이 연구에서 지역의 효과를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연구의 범위를 세밀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임금 소득이 있는 만 34세 미만 대졸자 청년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이와 같이 표본을 설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부모 배경과 지역에 따라 대학교에 진입하지 못한 개인들도 분명 존재하겠지만, 같은 단계의 교육을 받았음에도 임금 소득 성과에 차이가 날 수 있고, 이러한 차이에 영향을 주는 지역의 역할을 확인하기 위해 대학을 졸업한 자에 주목하였다.



〈그림 1〉 기본모형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다양해짐에 따라(김기현, 2004),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은 청년을 대상으로 하여 지역과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의 영향력을 정확히 포착하고자 하였다. 이에 더하여 한국 사회에서 특수한 목적을 가진 기관과 특수한 직종은 지역을 뛰어넘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승욱 외, 2023; 유길한, 2017)을 고려하였을 때, '기회가 풍부한 지역으로의 이동'의 효과를 왜곡할 여지가 있는 특수목적고등학교 졸업자와 의·약학 계열 전공자는 연구 범위에서 제외하였다.

이를 위해 활용하는 주된 분석 자료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조사하는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 조사(GOMS, Graduate Occupational Mobility Survey)'이다. GOMS는 노동시장 진입 또는 대학원 진학 등 대학교 졸업 이후 이어지는 삶의 경로를 포착하고자 실시하는 조사로 대학 졸업 이후 삶의 성과뿐만 아니라 개인이 경험 한 고교, 대학, 직장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알 수 있다. 더불어 이 연구에서 주목하고 있는 개인의 다양한 지역 이동 양상도 출생지,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 출신대학 소재지, 직장 소재지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개인의 삶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진 부모의 과거 소득 및 학력 등 사회·경제적 배경을 고려할 수 있는 문항들도 포함하여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적절한 분석자료로 판단된다. 구체적으로는 최신 GOMS 자료인 2018년 8월~2019년 2월 대학 졸업자를 대상으로 설문한 2019 GOMS를 활용하였다.

이 연구를 위한 적합한 분석 방법으로는 경로분석(Path Analysis)을 고려할 수 있다. 경로분석은 이론 및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그 연구모형의 적절성을 분석하는 방법이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인과관계뿐만 아니라 독립변수와 독립변수 간의 인과관계도 분석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우종필, 2016). 경제활동 중인 개인을 대상으로 한 경로분석을 통해 동일한 지역에서 출생했거나, 고등학교 교육을 받았거나, 대학 교육을 받은 개인이 다음 생애주기에서 중심부로 이동한다면 이

동하지 않았을 때보다 훗날 노동시장에서 높은 성과를 얻게 되는지를 확인함으로써 현재 우리나라의 지역 간 기회의 불균형을 검증하였다.

이 과정에서 지역 이동의 내생성 및 선택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향점수매칭 방법을 활용하였다. 성향점수매칭은 실험적 상황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처리를 받지 않은(untreatment) 사람들 중 처리를 받은(treatment) 사람들과 유사한 특징을 가진 사람들의 결과를 활용하여 처리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의 영향력을 인위적으로 줄여 실험과 유사한 환경을 만드는 방법이다(Rosenbaum & Rubin, 1983). 이 연구에서 주목하고 있는 처리 변수인 지역 이동은 무작위적(randomized)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선행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변수이기에 내생성 및 표본선택편의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성향점수매칭을 통해 이를 교정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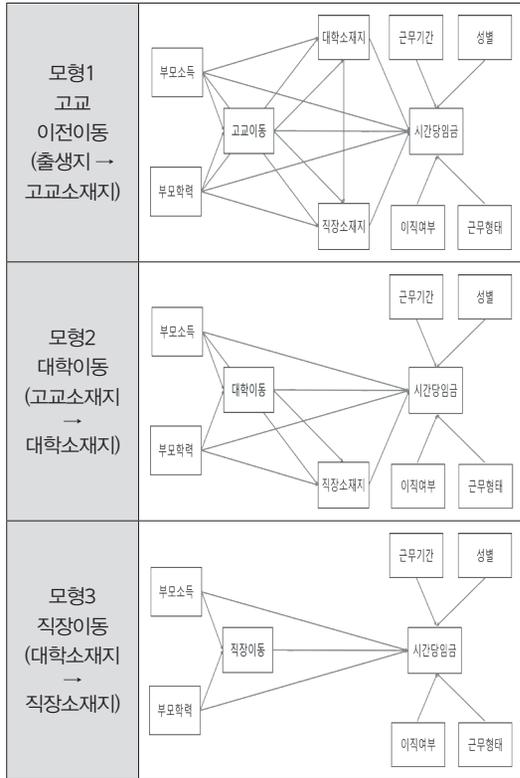
## 2) 변수설정

이 연구에서 각 시기에 따라 구체적으로 활용되는 모형에는 차이가 있다. 이는 지역 이동 이후의 생애주기가 시기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이다. 앞서 살펴본 기본모형(그림 1)에서 사회·경제적 배경과 지역 이동, 그리고 삶의 성과와의 관계는 모든 모형에서 공통적으로 고려되지만, 이동 시점에 따라 이후 활용되는 지역 변수의 범위에는 차이가 있다. 성장기 이전 이동(고등학교 이전 이동)은 이후에 대학 교육과 직장의 시기로 이어지지만, 대학 진학을 위한 이동 이후에는 직장의 시기로만 이어진다. 이와 같은 모형 설정을 통해 지역 이동이라는 특정 시점의 선택이 이후 이어지는 생애주기에도 누적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시기별 모형과 모형에 포함되는 변수들의 자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표 1, 2 참조).

경로모형의 최종 내생변수이자 이 연구에서 관심을 가지는 개인의 경제적 삶의 성과 지표인 시간당임금은 현 직장에서의 월 소득을 총근로시간으로 나눈 후 자연로그를 취한 값을 활용한다. 다음으로 이 연구에

〈표 1〉 생애주기별 이동에 따른 임금과의 관계 모형



서 또 하나의 중요변수인 지역 이동 변수는 이동 전-후 지역의 '기회의 풍부성'에 의해 규정되는데 선행연구에 따라 중심성이 높은 지역일수록 기회가 풍부하다는 전제하에 설정된다. 구체적으로 출생지, 고등학교 소재지, 직장 소재지는 중심성에 따라 균형발전 논의에 활용된 지역 구분을 종합하여 '비수도권과 수도권'으로 구분한다. 출생지와 성장지, 성장지와 대학 소재지, 대학 소재지와 직장 소재지의 중심성 변동 양상에 따라 범주화되는 지역 이동 변수는 '수도권으로 이동'과 '비수도권 잔류'로 정의하고, 경로분석을 위해 서열화하였다. 이동 이후 이어지는 생애주기에서 영위되는 대학 소재지와 직장 소재지의 경우는 지역 이동에 활용된 지역 구분보다는 더욱 세밀한 구분을 활용하였다. 대학 소재지의 경우, 대학 운영 주체와 지역성을 고려하여 서울, 경기·인천, 비수도권국립대, 비수도권 사립대로 구분하였고, 직장 소재지는 '군·일반시', '광역시·(서울 외)수도권', '서울'로 구분하여 지역의 중심

성을 기준으로 서열화하였다(표 2).

최종 내생변수인 시간당 임금에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의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 개인에게 주어진 외생변수로 모형에 포함하였다. 구체적으로 부모 학력과 부모 소득을 활용하였는데,<sup>3)</sup> 부모 소득은 설문 문항에서 조사된 소득 구간별 중앙값을 사용하였으며, 상한치가 없는 '1,000만원 이상'의 경우 '가계동향조사(2019)'의 전국 평균 가구소득에 근거하여 산출한 '1,216만원'을 활용하였다. 경로분석에서 활용되는 변수는 연속형 변수이거나 적어도 서열적도여야 한다는 제약에 따라, 부모 학력은 무학에서부터 대학원 졸업까지 교육 수준에 따라 서열화하는 과정을 거쳤고, 부모의 학력 중 상위 값을 사용하였다.

임금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때, 전통적으로는 직무, 산업, 직종, 제도적 요인, 생활비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주목된다. 그러나 직무, 산업, 직종 등 일자의 구조적 특징과 제도적 요인, 생활비 등의 요소들은 '직장소재지' 내의 임금 기회 구조로 간주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의 선택에 따른 총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 연구의 분석 모델에 별도의 통제 변수로 포함하지 않았다. 다만, 개인의 인적자본, 숙련도 등을 대리하는 근속년수, 이직 여부, 근무 형태 등은 지역 내 기회 구조가 아닌 개인의 속성이므로 통제를 통해 지역의 효과와 분리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역 자체에 내재된 특성을 축소하지 않고 더욱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

지역 이동이라는 처지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들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하는 성향점수매칭에서도 지역 이동의 시기에 따라 활용하는 매칭 변수에 차이가 있다. 고교이전이동과 대학이동의 경우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기에 부모소득, 직업, 학력 등을 활용하여 매칭하였다.<sup>4)</sup> 직장이동의 경우는 대학 시절 경험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기에 전공유형과 대학 성적(100점 환산)을 활용하여 매칭을 실시하였다.

〈표 2〉 변수설명

변수명		변수설명
시간당임금		현 직장에서의 월소득을 총 근로시간으로 나눈 뒤 자연로그를 취한 값
임금 영향요인	근무기간	현직장 근속년수
	성별	'0 = 여성' '1 = 남성'
	이직여부	'0 = 이직 경험 없음' '1 = 이직 경험 있음'
	근무형태	'0 = 비상용직 근로자' '1 = 상용직 근로자'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	부모학력	부모의 학력 중 상위 값
	부모소득 (백만원) <sup>1)</sup>	0='없음', 1='0.5', 2='1.5', 3='2.5', 4='3.5', 5='4.5', 6='6.0, 7='8.5', 8='12.16'
지역변수	대학교재지	'0 = 비수도권사립대학' '1 = 비수도권국립대학' '2 = (서울 외)수도권내 대학' '3 = 서울내 대학'
	직장소재지	'0 = 군, 일반시' '1 = 광역시, (서울 외)수도권' '2 = 서울'
지역 이동 <sup>2)</sup>	고교 이전이동	(비수도권 출생 中) 출생 → 고등학교 '0 = 비수도권 잔류(비수도권 고등학교) '1 = 수도권으로의 이동(수도권 고등학교)
	대학이동	(비수도권 출생 & 비수도권 고등학교 졸업 中) 고등학교 → 대학교 '0 = 비수도권 잔류(비수도권 대학교) '1 = 수도권으로의 이동(수도권 대학교)
	직장이동	(비수도권 출생 & 비수도권 고등학교 졸업 & 비수도권 대학 졸업 中) 대학교 → 직장 '0 = 비수도권 잔류(비수도권 직장) '1 = 수도권으로의 이동(수도권 직장)

1) 설문 문항에서 조사된 소득구간별 중앙값을 사용하였으며, 상한치가 없는 최고소득구간의 중앙값은 '가계동향조사(2019)'의 전국 평균 가구소득에 근거하여 산출함.

2) 지역 이동의 경우 의미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출발점을 맞추는 과정을 거쳤음.

#### 4. 생애주기별 기회로의 이동이 임금 소득에 미치는 영향

이 장에서는 앞서 설정한 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를 살펴볼 것이다. 먼저 성향점수매칭 방법을 통해 지역 이동 변수로 인한 표본선택편의와 내생성 문제를 통제한 과정에 대해 서술한다. 이어서 각 모형에서 설정하고 있는 이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동과 임금의 관계, 이동이 이후 생애주기에 미치는 영향,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개인의 이동 양상 및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구조적 경로를 서술할 것이다.

##### 1) 성향점수매칭 결과

고교이전이동, 대학이동, 직장이동을 각 모형의 처

치변수로 하여 성향점수매칭을 실시하였다. 성향점수 매칭 시에는 매칭의 범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매칭의 결과에 차이가 발생한다. 이 연구에서는 매칭의 품질을 가장 높이면서, 표본의 수도 적절히 확보할 수 있도록(Rosenbaum & Rubin, 1985; Austin, 2011) 로짓의 표준편차에 0.2를 곱한 수치를 caliper widths 로 설정하고 매칭을 진행하였다. 각 모형별로 매칭된 표본수는 다음과 같다(표 3 참조). 모형 1의 경우 비수도권에서 출생한 개인을 분석에 포함하였으며 총 611명이 이에 해당한다. 이 중 수도권 지역으로 이동한 인원은 380명, 비수도권 지역에 잔류한 사람은 그 외인 231명이다. 모형 2에서는 비수도권 출생, 비수도권 고등학교 졸업 학생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총 706명이 분석에 활용된다. 이 중 수도권 대학교에 진학한 인원이 456명이고, 해당 지역에서 잔류 및 다른 비수도

권 지역 대학에 진학한 인원이 250명이다. 마지막으로 모형 3은 비수도권 출생, 비수도권 고등학교와 대학교 출신 사람을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였고, 719명이다. 이들 중 331명의 인원이 비수도권 지역에서 직장을 구하였고, 수도권 내 직장으로 이동한 인원은 388명이었다.

이어서 성향점수를 기준으로 매칭된 이동한 개인과 이동하지 않은 개인의 동질성 확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매칭변수에 대한 집단 간 평균차이 분석(t-test)을 실시하였다(표 4 참조). 매칭 전 집단 간 평균 차이 분석 결과를 통해 생애주기별로 이동한 집단의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 차이를 볼 수 있다. 부모 소득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 이동한 집단과 대학 진학을 위해 이동한 집단의 부모 소득이 직

장 취업을 위해 이동한 집단보다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고교이전이동은 학생 단독 이동보다 온 가족이 함께 이동할 가능성이 크기에 수도권의 주거비를 부담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사람들이 이동했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대학이동 시기는 단독 이동이 가능한 시기이나, 여전히 부모의 영향이 큰 시기이다. 상대적으로 높은 위세를 가진 대학이 수도권, 서울에 몰려있기에 대학이동을 위해서는 높은 성적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런데 자녀의 성적은 부모의 소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김은정, 2007; 남춘호, 2003; 신명호, 2010; 최필선·민인식, 2015), 대학이동에도 부모 소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비수도권 지역에서 가족과 함께 살 때와 비교하면 수도권 거주는 더 높은 생활 비용이 필요하기에, 이를 감당할 수

〈표 3〉 성향점수매칭 후 표본

	모형1_고교이전이동 (n=611)	모형2_대학이동 (n=706)	모형3_직장이동 (n=719)
수도권으로 이동	380	456	388
비수도권 잔류	231	250	331

〈표 4〉 성향점수매칭 후 표본의 동질성 확인

	매칭	고교이전이동				대학이동				직장이동			
		평균		t-test		평균		t-test		평균		t-test	
		처치	비교	t	p> t	처치	비교	t	p> t	처치	비교	t	p> t
부모 소득	전	550.14	472.33	5.15	0.000***	538.04	457.72	5.89	0.000***	450.65	459.58	-0.63	0.529
	후	550.14	558.69	-0.36	0.719	538.04	545.21	-0.35	0.725	450.65	441.73	0.50	0.620
부모 학력	전	4.3895	3.992	6.44	0.000***	4.239	3.9371	5.27	0.000***	3.9768	3.9277	0.79	0.428
	후	4.3895	4.3526	0.44	0.662	4.239	4.2039	0.47	0.639	3.9768	4.0309	-0.67	0.500
부직업	전	4.1632	4.3557	-1.71	0.088*	4.2149	4.3869	-1.62	0.106	4.4613	4.3778	0.72	0.469
	후	4.1632	4.1289	0.24	0.813	4.2149	4.2061	0.06	0.948	4.4613	4.3041	1.06	0.290
모직업	전	1.9895	2.2719	-2.20	0.028**	2.261	2.2744	-0.11	0.912	2.1624	2.3025	-1.06	0.290
	후	1.9895	1.9289	0.37	0.710	2.261	2.2873	-0.17	0.864	2.1624	2.3376	-1.02	0.308
전공 유형	전									1.9124	1.771	3.29	0.001
	후									1.9124	1.9278	-0.25	0.805
학점 (100점 환산)	전									80.841	80.449	0.72	0.472
	후									80.841	81.194	-0.52	0.606

1) \* p < 0.10, \*\* p < 0.05, \*\*\* p < 0.01

있는 집단이 수도권으로의 대학 진학을 선택한 결과가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직장이동의 시기는 상대적으로 부모의 경제적 영향력에서 자유롭기 때문에(김기현, 2004)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매칭 후에는 매칭 전 존재하던 선행요인들의 차이가 없어짐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생애주기별 기회로의 이동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때, 해당 매칭 표본을 활용하였다.<sup>5)</sup>

## 2) 생애주기별 기회로의 이동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

성향점수매칭을 통해 얻은 표본 가중치를 설정하여 분석을 실시하였고, 분석 시 이 연구의 최종 내생변수인 임금은 독립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특정 직업 내에서 유사한 경향을 보일 수 있음을 고려하였다. 한국고용직업분류의 직업중분류를 활용하여 클러스터 표준오차를 산출함으로써 표준오차가 실제보다 작게 추정되어 발생할 수 있는 통계적 오류를 방지하였다. 모형적합도를 확인하였을 때, Chi-square 값은 모형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Chi-square는 표본의 수에 영향을 많이 받는 지표이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CFI(Comparative Fit Index), TLI(Tucker-Lewis Index), SRMR(Standardized Root Mean Square Residual), GFI(Goodness of Fit Index) 값을 통해 추가적으로 모형의 적합성을 확인하였다(표 5 참조). 세 모형 모두 각 모형의 적합도 기준<sup>6)</sup>을 충족하여 해당 모형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이 연구의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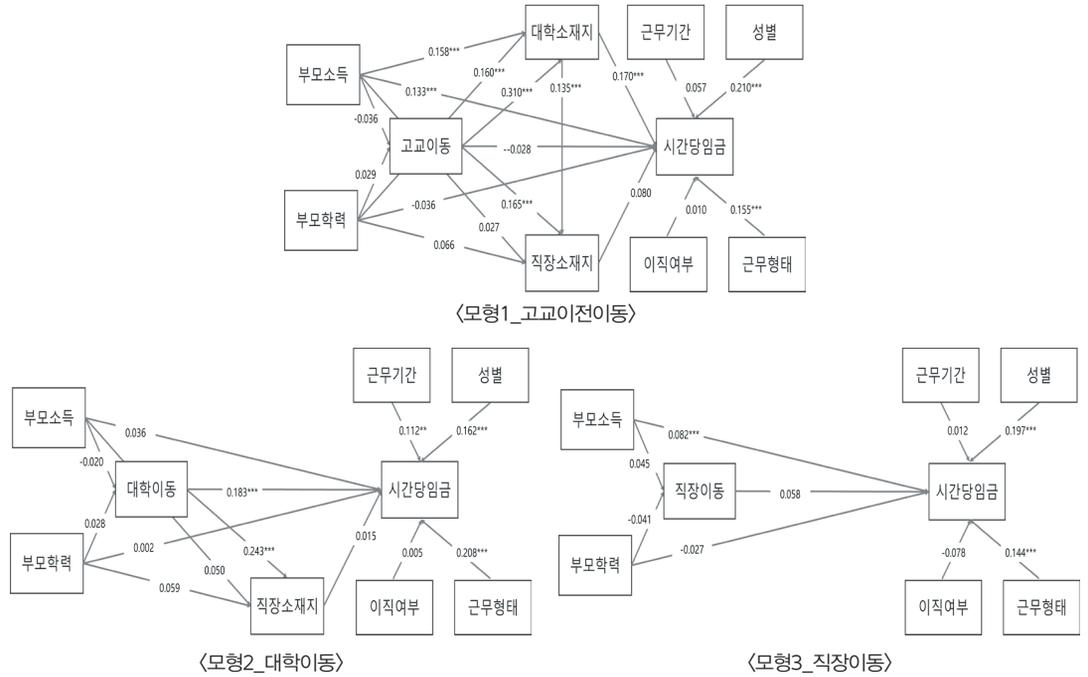
결과를 종합한 표는 다음과 같다(표 6 참조). 먼저

연구의 중심 질문인 기회가 풍부한 곳으로의 이동이 향후 개인의 삶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논의부터 시작한다. 이동으로 인한 개인의 노동시장 성과 향상 효과를 분해하여 살펴보면, 어느 시점의 이동인가에 따라 차별적 양상이 발견된다. 우선 모형 1(고교 이동)의 경우 이동이 시간당 임금을 직접적으로는 상승시키지 못하고 대학 소재지와 직장 소재지의 변화를 통해 간접적으로 양(+)의 효과를 보였다. 간접효과를 분해해서 살펴보면, 이동이 대학소재지를 통해 시간당임금으로 이어지는 경로(고교이전이동→대학소재지→시간당임금)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고교이전이동의 이점은 서울 내 대학으로의 진학을 통해 시간당 임금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한국 사회 부의 생산 구조는 대학에 의해 발현된다는 점을 의미하고, 고교이전이동을 통해 중심부의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용이한 것으로 나타났기에(고교이전이동→대학소재지) 이때의 이동도 임금에 미치는 영향이 일정 정도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한국 사회에서 대학소재지의 중요성은 모형 2(대학이동)에서 더욱 자세히 드러난다. 모형 2의 경우 대학이동은 임금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효과를 내고 있다. 직장 소재지 변화를 통한 간접효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의한 양(+)의 효과를 보인 직접 효과에 기인한 것이다. 이는 최근 다소 감소하고 있기는 하지만(김진영, 2022; 김승정 외, 2024), 우리 사회에서는 여전히 수도권 내 대학으로의 이동에 프리미엄이 존재함을 확인시켜주는 결과이다. 마지막으로 모형 3(직장이동)의 분석 결과 수도권 내 직장으로의 이동은 임금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직종, 직무, 산업, 생활비 등도 지역 내 존재하는 기회로 간주하여 별도로 모형에서 통제하지 않았기에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는 현존하는 수

〈표 5〉 모형의 적합도

	RMSEA	CFI	TLI	SRMR	GFI
모형 1. 고교이전이동	0.0356	0.9936	0.9840	0.0275	0.9990
모형 2. 대학이동	0.0574	0.9872	0.9664	0.0296	0.9987
모형 3. 직장이동	0.0527	0.9957	0.9860	0.0195	0.9995

〈표 6〉 지역 이동이 경제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분석 결과



	모형1_고교이전이동 (n=611)			모형2_대학이동 (n=706)			모형3_직장이동 (n=719)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Total Effect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Total Effect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Total Effect
이동 → 시간당임금	(-)	(+)**	(+)	(+)**	.	(+)**	(+)	.	(+)
이동 → 대학소재지	(+)**	.	(+)**						
이동 → 직장소재지	(+)**	(+)	(+)**	(+)**	.	(+)**			
대학소재지 → 시간당임금	(+)**	(+)	(+)**						
직장소재지 → 시간당임금	(+)	.	(+)	(+)	.	(+)			
대학소재지 → 직장소재지	(+)**	.	(+)**						
부모소득 → 시간당임금	(+)**	(+)**	(+)**	(+)	(-)	(+)	(+)**	(+)	(+)**
부모소득 → 이동	(-)	.	(-)	(-)	.	(-)	(+)	.	(+)
부모소득 → 대학소재지	(+)**	(-)	(+)**						
부모소득 → 직장소재지	(+)	(+)	(+)	(+)	(-)	(+)			
부모학력 → 시간당임금	(-)	(+)**	(-)	(+)	(+)	(+)	(-)	(-)	(-)
부모학력 → 이동	(+)	.	(+)	(+)	.	(+)	(-)	.	(-)
부모학력 → 대학소재지	(+)**	(+)	(+)**						
부모학력 → 직장소재지	(+)	(+)**	(+)**	(+)	(+)	(+)			
근무기간 → 시간당임금	(+)	.	(+)	(+)**	.	(+)**	(+)	.	(+)
이직여부 → 시간당임금	(+)	.	(+)	(+)	.	(+)	(-)	.	(-)
성별 → 시간당임금	(+)**	.	(+)**	(+)**	.	(+)**	(+)**	.	(+)**
근무형태 → 시간당임금	(+)**	.	(+)**	(+)**	.	(+)**	(+)**	.	(+)**

1) \* p < 0.10, \*\* p < 0.05, \*\*\* p < 0.01  
 2) 음영처리된 셀은 해당 모형에서 없는 값을 의미함.

도권-비수도권의 임금 격차가 지역적 요인이 아니라 인적자본 수준의 차이와 그에 대한 보상 차이에 기인한다는 허식(2007), Lim and Cho(2009)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그러나 서울로의 지나친 집중으로 인해 경쟁이 심화되어 동일 역량의 근로자가 더 열악한 일자리에 진입할 가능성도 있기에(고영우, 2018), 이는 추가 분석을 요하는 결과이다.

다음으로는 기회가 풍부한 곳으로의 이동이 향후 생애주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답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모든 시기의 이동은 중심성이 높은 지역으로의 경로의존성을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모형 1에서의 '이동→대학 소재지'와 '이동→직장 소재지' 그리고 모형 2에서의 '이동→직장 소재지' 경로를 의미하는데 이는 모두 양(+)으로 유의한 총효과를 보인다. 이러한 효과는 유의하게 양(+)으로 나타난 직접 효과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으로 이동하여 성장하고 교육받은 이들은 수도권의 대학으로 진학하고 비수도권 지역보다는 수도권의 직장에 취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상황은 선행연구에서 확인하였듯이 인적자본을 축적할 기회, 또래 효과, 네트워크 효과를 발휘할 기회 등 위세 좋은 기관으로 진입할 기회 자체가 중심부 지역에 풍부하기에 이러한 이점이 발현된 결과로 보인다. 또한 이미 정착해서 살고 있던 지역에 계속해서 머무르려고 하는 태도에 의한 것으로도 볼 수 있으며, 중심성이 높은 지역에서 살아오으로써 계속된 삶을 유지함에 드는 비용 등 장애요인의 작용이 적음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지역을 매개하여 자식 세대의 삶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부모의 소득이 모형 1과 모형 3에서 자식 세대의 시간당 임금에 유의한 양(+)의 효과를 보인 결과로 미루어볼 때, 경제적 배경이 더 확실한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부모 소득이 높은 경우 서울 내 대학으로의 진학이 용이한 것으로 나타난 모형 1의 분석 결과도 주목할 만하다. 성향 점수 매칭을 통해 부모 소득의 영향력을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과 고교이전이동과 대학 이동을 한 집단의 부모소득이 더 높았던 평균 비교 결

과를 종합하면 부모소득이 높은 경우 이동도 용이하고, 이러한 이동을 통해 중심부의 삶을 영위하는 구조적 경로를 발견할 수 있다. 다만, 이동시기와 부모소득의 측정 시기가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기에 향후 이를 고려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개인의 경제적 성과라는 측면에서 볼 때, 지역에 따라 가장 불균등하게 분포된 기회는 대학과 관련한 기회이다. 대학 진학 시에 기회로의 이동이 수반되는가에 따라 향후 임금 성과가 유의미하게 달라졌기 때문에 가장 주요한 이동의 시기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고등학교 진학 시기의 이동도 이후 중심성 있는 지역에서의 경로의존성을 형성하여 중심성 높은 대학 진학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어느 시기의 이동인지에 상관없이 이동만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에 경로의존성을 부여한다는 점과 부모 소득이 자식의 경제적 성과를 성취하는 경로에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결합하면 현존하는 우리나라의 지역 격차가 부의 불평등을 세대 간에 재생산하는 매개로 활용될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 5. 결론

이 연구는 소위 '기회가 풍부한 지역'으로 불리는 곳으로의 이동이 임금으로 대표되는 개인의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생애주기에 따라 어떻게 차별적으로 나타나는지를 검증하고, 그 차별적 영향을 야기하는 구조적 경로를 규명함으로써 현재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불균등한 기회 구조에 대해 심도 있게 이해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2019년의 GOMS를 활용한 경로분석을 실행하여 얻은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 이동이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생애주기는 대학 진학 시기이다. 세 개의 생애주기 모형 중 대학 진학 시기의 이동만이 궁극적으로 임금을 제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수도권 지역의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개인의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을 의미한다. 따라

서 해당 시기에 이뤄지는 지역 이동, 수도권-비수도권 대학 간 직업 기회의 차이 등에 주목하여 기회 균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회가 풍부한 곳으로의 지역 이동은 이후에도 중심부에서 삶을 유지하게 해주는 중요한 요인임을 발견하였다. 고등학교 진학 이전의 이동은 수도권 내에서 유리한 사교육 환경과 높은 교육 열망을 가진 학부모에게서 발견되는 네트워크 효과, 상호 경쟁을 통해 성장해 나가는 동료 효과 등이 작용하여 서울 내 대학으로의 진학을 용이하게 한다. 그리고 수도권 내 대학으로의 진학은 인적자본 향상 효과와 신호 효과가 결합하여 수도권 내 직장으로의 취업을 용이하게 만든다. 또한 타지역에서 중심부로의 이동에 있어 장애 요소로 작용하는 것들이 중심부의 삶을 계속 영위해 온 이들에게는 작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요인들이 지역 이동에 따른 경로의존성을 만들어 낸다. 이런 점 때문에 고등학교 진학 시기의 이동도 대학 시기 못지않게 중요하다.

셋째, 부모의 높은 소득은 자녀가 유리한 지역으로 이동하고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자녀도 높은 소득을 얻는 데 긍정적으로 기여한다. 즉, 고소득 부모는 고교이전이동과 대학이동의 형태로 자녀를 기회가 풍부한 지역으로 이동시킴으로써 자신의 자녀도 높은 임금 소득을 거둘 수 있도록 한다. 이는 부유한 부모가 기회의 지역 격차 구조 속에서 지역 이동을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서 활용함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기회의 지역 간 격차는 부의 불평등이 세대 간에 재생산하는 데 매개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계획적 시사점을 고려할 수 있다. 첫째, 한국의 청년들이 출신 대학의 소재지에 따라 다른 기회가 주어지는 불균형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상위 대학의 졸업자가 높은 임금을 받는 이유는 인적자본 이론으로 뒷받침되듯이 양질의 교육을 받아 역량을 향상한 개인이 업무에서 높은 성과를 내서이기도 하지만, 상위 대학 출신이라는 후광 때문에 높은 임금이 보장되는 직업을 얻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국제성인역량 조사에 근거하여 다른 나라와 비

교한 결과, 한국의 임금 불평등 정도가 근로자들의 능력의 격차에서 기인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남기곤, 2017). 또한 출신 학교를 드러내지 않는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하면 상위권 대학 출신의 비율이 감소한다는 분석도 있다(박재욱, 2021). 이는 한국 사회에서는 신호 효과도 인적자본 효과 못지 않게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신호의 근거로 작용하는 대학 평판이 지역에 따라 불균형하게 형성될 수 있기에 이를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 일환으로 지역과 대학의 기능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대학평가와 비수도권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거점대학 육성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대학 진학 시 자유롭게 대학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개인의 대학이동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고등학교 이전 이동은 대학 이동과 다르게 개인의 선택보다는 가족 전체의 이동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변화시키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비수도권에서 출생하여 성장한 청년이 서울 내 대학으로 대표되는 상위 대학을 진학할 때, 서울 출신 청년보다 제약이 크지 않도록 하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특히 비수도권의 고교 출신자가 서울의 대학을 진학하는 과정에서 부모의 소득이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을 위한 국가의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적극적 평등조치(ex 지역인재 선발) 등 선발에서의 기회균등을 꾀하거나, 장학금, 학자금 대출, 기숙사 설립 등 경제적 지원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한국적 맥락에서 기회로의 이동이 개인의 삶의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지역이 구조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단편적으로 확인되던 지역 이동의 효과를 생애주기에 따라 구체적인 양상으로 확인하고, 기회 격차로 인한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는 실천적 기여가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닌다. 첫 번째는 완전히 무작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동의 효과를 성향점수 매칭의 방법을 통해 보다 정밀하게 측정하고자 하였으나, 자료상의 한계로 인해 각 이동의 특성을 완전히 고

려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개인의 반사실적 행위를 관측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에 따라 성향점수매칭을 통해 분석에 엄격성을 더하고자 하였으나, 지역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인들을 모두 고려했다고 단언하기 어렵고, 이동 시기와 측정 시기의 불일치로 인한 한계도 존재한다.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하지만 앞서 살펴보았던 인적자본이론과 한국 사회에서 교육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자녀의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교육열과 개인의 학업 역량은 이동에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고등학교 이전 이동에서는 부모의 교육적 관심에 의해 기회가 풍부한 곳으로 이동이 이루어졌을 수 있고, 대학 진학을 위한 이동과 직장을 위한 이동에서는 대학과 직장이 요구하는 개인의 학업적 역량에 의해 이동이 차별적으로 이루어져, 차별적 임금 성과로까지 이어졌을 수 있다. 이러한 요소들의 추가적 고려와 이동 시기와 데이터 측정 시기의 일치가 이루어진다면 유사한 궤적의 삶을 살았던 개인이 지역의 기회 구조 차이에 의해 차별적 성과를 도출하는 경로를 더욱 정밀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고, 지역의 기회 격차와 기존의 불평등이 결합하는 양상을 정확히 포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두 번째 한계는 지역으로의 이동이 향후 개인의 성과에 격차가 발생할 것이라는 연구 가설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지역에 따른 거시적인 차이에 주목하고 지역 내부의 구체적인 여건은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향후 지역 여건에 대한 고려와 개인의 특성 및 학교, 직장의 특성을 고려한 연구가 뒷받침된다면 더욱 유의미한 연구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공간적 기회 구조의 풍부성을 중심성과 비례하여 단순화하였다는 점이다. 보편적으로는 중심성과 비례하여 공간적 기회 구조가 편재해있지만, 우리나라는 특수한 목적을 가진 기관과 특수한 직종에 의해 중심성이 낮은 지역에도 기회가 주어졌기 있다. 또한 오히려 중심성이 낮기 때문에 정부에서 제공하는 기회들도 존재한다. 이와 같은 다양한 기회 구조를 고려한 분석이 추가된다면 다양한 지역의 지역 격차로 인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더욱 심도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주

- 1) 근린 범위의 공간적 기회 구조에 관한 논의는 Galster(2011: 1-3)의 논문을, 지역 스케일에서의 공간적 기회 구조에 대한 논의는 Bernard et al.(2023; 108-114)의 논문을 참고하라.
- 2) 갈등주의적 관점으로 보았을 때 교육은 능력주의 사회에서 지배계급의 '아비투스(Habitus)'를 계승하거나, 집단 간 경쟁을 통해 사회적 특권을 유지하기 위한 기제이다. 즉, 상위 계층이 교육을 통해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음을 이야기한다(Bourdieu and Passeron, 1970; 김영화 2020 재인용). 갈등론자와 달리 교육 기능론자들은 교육으로 인한 계층 상승이 가능함을 주장하지만, 가정적 요인이 개인의 교육 수준에 영향을 주는 간접요인이 될 수 있음을 밝히는 연구도 있다(Blau and Duncan, 1967). 교육갈등론과 기능론에서 주장하는 계층 재생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신재홍(2020)을 참고하라.
- 3) 데이터의 한계상 부모학력의 경우는 설문에 응답할 당시 부모의 학력을 활용하였고, 부모소득은 대학 입학 당시 부모의 소득을 활용하였기에 각 모형별 이동시기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 향후 분석 시에 이러한 한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 4) 고등학교 특성, 전공 등은 표본 선정시 이미 통제되었기 때문에 성향점수매칭의 과정에서 제외하였다.
- 5) 성향점수매칭을 실시하지 않고 생애주기별 기회로의 이동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결과는 <부록>에 첨부되어 있다. 성향점수매칭 전후 부모 배경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이 차이를 보이고, 모형 1의 경우 지역이동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에도 상이한 양상을 보인다. 이와 같은 차이는 이 연구에서 전제하고 있는 유사한 궤적의 삶을 살아온 개인간 비교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움을 의미한다. 성향점수매칭 이전에는 이동의 효과에 부모의 배경이 포함된 것으로 온전한 이동의 효과로 보기는 어렵다. 매칭 전후 표본수의 차이만큼 상이한 궤적의 삶을 살아온 개인이 분석에서 제외함으로써 이동의 효과를 더욱 정밀하게 포착하고자 하였다.
- 6) RMSEA 경우 0.05 이하이면 매우 적합한 모형, 0.08 이하이면 양호한 모형이라고 판단할 수 있고, CFI와 TLI, GFI의 경우는 0.9 이상이면 분석에 활용하기에 적합한 모형으로 받아들여진다. SRMR이 0.05보다 작으면 매우 적합한 모형으로 판단할 수 있고, 0.08보다 작을 경우 양호한 모형으로 볼 수 있다(우종필, 2016).

## 참고문헌

겔스터, 2023, 『우리가 만드는 동네, 우리를 만드는 동네』, 파주: 한울아카데미.

- 고영우, 2018, 대졸자의 첫 직장 이행에서 지역이동의 임금 효과: 비수도권 대졸자의 지역이동을 중심으로, 『월간 노동리뷰』, 2018(5), pp.19-29.
- 공희정·박경현, 2020, 잠재프로파일분석을 활용한 고등학생의 대학진학 동기: 부모 환경의 영향 및 대학 선택을 중심으로, 『교육학연구』, 58(4), pp.119-150.
- 구양미, 2021, 인구 변화와 도시 쇠퇴의 지역 불균형: 저출산과 지방소멸 문제에 대한 시사점, 『국토지리학회지』, 55(3), pp.301-320.
- 권혁기·김병주, 2021, 4년제 대졸자의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및 대학 변인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39(5), pp.201-234.
- 김경근, 2005, 한국사회 교육격차의 실태 및 결정요인, 『교육사회학연구』, 15(3), pp.1-27.
- 김기현, 2004, 가족 배경이 교육단계별 진학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학』, 38(5), pp.09-142.
- 김민영·임엽, 2017,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임금격차와 인적 자본: 무조건 분위회귀 분해법의 적용: 무조건 분위회귀 분해법의 적용, 『지역연구』, 33(2), pp.3-23.
- 김승연·박민진, 2021, 장벽사회, 청년 불평등의 특성과 과제, 『정책리포트』, pp.1-21.
- 김승정·최호권·정예림·양완진·박인권, 2024, 성장기 거주 지역에 따른 교육 및 임금 격차와 소득불평등의 재생산, 『국토계획』, 59(1), pp.88-102.
- 김영화, 2020, 『피에르 부르디외와 교육』, 파주: 교육과학사
- 김우영, 2012, 한국의 지역간 임금격차: 지역별 고용조사(RES)를 중심으로, 『노동정책연구』, 12(1), pp.1-28.
- 김은정, 2007,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사교육비, 부모-자녀 관계 그리고 청소년 자녀의 학업성취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부모-자녀 관계의 매개역할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1(5), pp.134-162.
- 김진영, 2022, 대학서열과 노동시장: 학벌 프리미엄의 시대별 변화, 『분석과 대안』, 6(1), pp.35-69.
- 김희삼, 2010, 지방대학 졸업자의 노동시장 성과와 지역별 교육격차, 『한국개발연구』, 32(2), pp.55-92.
- 남기곤, 2017, 교육 불평등의 현실과 정책 대안, 『사회복지법제학회 학술대회지』, 2017(1), pp.337-361.
- 남춘호, 2003, 교육불평등과 노동시장, 『지역사회학』, 4(2), pp.5-43.
- 류장수, 2005, 지방대학 졸업생의 노동시장 성과 분석: 수도권대학 졸업생과의 비교, 『노동경제논집』, 28(2), pp.1-27.
- 류장수, 2015, 지역 인재의 유출 실태 및 결정요인 분석, 『지역사회연구』, 23(1), pp.1-23.
- 박재민, 2010, 중소기업 취업자의 직장선택과 이동 그리고 임금 수준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0(9), pp.387-398.
- 박재욱, 2021, 출신대학 블라인드 채용: 선별과 편견, 『한국경제연구』, 39(2), pp.99-128.
- 상명성·문영만, 2024, 비수도권 대졸 청년의 취업 및 수도권 유출 결정요인-부모 소득과 노동시장 성과를 중심으로, 『아시아연구』, 27(1), pp.349-366.
- 소진광, 2020, 지역균형발전의 접근논리 탐색: 지역격차 인식을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34(1), pp.3-48.
- 신명호, 2010,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41(2), pp.217-245.
- 신재흠, 2020, 『교육과 사회: 교육의 사회학적 이해』, 서울: 동문사.
- 오호영, 2007, 대학서열과 노동시장 성과: 지방대생 임금차별을 중심으로, 『노동경제논집』, 30(2), pp.87-118.
- 우종필, 2016, 『우종필 교수의 구조방정식모델 개념과 이해』, 서울: 한나래아카데미.
- 이상호, 2010, 지역간 이동의 결정요인 및 임금효과, 『지역연구』, 26(1), pp.45-70.
- 이승욱·박철웅·강승범, 2023, 도시불평등과 기회의 지리, 『공간과 사회』, 33(3), pp.285-320.
- 이용호·엄선비·송지현, 2021, 부모의 사회계층이 자녀의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고정효과모형을 적용하여, 『한국사회복지학』, 73(2), pp.107-131.
- 이종수, 2017, 지역 간 임금격차에 대한 고찰: 수도권·비수도권을 중심으로, 『노동정책연구』, 17(2), pp.143-171.
- 이지은·정세은, 2023, 부모의 소득 및 학력이 자녀 임금에 미치는 영향, 『Korean Journal of Labor Economics』, 46(1), pp.31-67.
- 이찬영·이흥후, 2016, 청년층의 지역 간 인구이동 결정요인 분석과 전망, 『경제연구』, 34(4), pp.143-169.
- 조동훈, 2020, 청년층 지역이동과 임금수준 효과, 『Korean Journal of Labor Economics』, 43(3), pp.123-148.
- 차미숙·조은주·곽윤신·전봉경, 2023, 전환기의 균형발전 정책 패러다임과 실천전략, 세종: 국토연구원.
- 최광성·강동우·최충, 2018, 지역이동이 대졸자의 임금 변화에 미치는 영향, 『Korean Journal of Labor Economics』, 41(2), pp.61-88.

- 최은영, 2004, 학력자본 재생산의 차별화와 빗장도시의 형성, 『대한지리학회지』, 39(3), pp.374-390.
- 최필선·민인식, 2015, 부모의 교육과 소득수준이 세대 간 이동성과 기회불균등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22(3), pp.31-56.
- 플로리다, 2018, 『도시는 왜 불평등한가』, 서울: 매경출판.
- 허식, 2007, 지역간 임금격차에 관한 요인분해: 수도권과 비 수도권 중심으로, 『산업경제연구』, 20(1), pp.1-16.
- Austin, P. C., 2011, Optimal caliper widths for propensity-score matching when estimating differences in means and differences in proportions in observational studies, 『Pharmaceutical statistics』, 10(2), pp.150-161.
- Becker, G. S., 1964, 『Human capital: A theoretical and empirical analysis, with special reference to education』, New York: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 Bergman, P., Chetty, R., DeLuca, S., Hendren, N., Katz, L. F., & Palmer, C., 2019, 『Creating moves to opportunity: Experimental evidence on barriers to neighborhood choice』, New York: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 Bernard, J., Steinführer, A., Klärner, A., & Keim-Klärner, S., 2023, Regional opportunity structures: A research agenda to link spatial and social inequalities in rural areas, 『Progress in Human Geography』, 47(1), pp.103-123.
- Blau, P. M. and Duncan, O. D., 1967, 『The American Occupational Structure』, New York: John Wiley & Sons.
- Briggs, X. S., Ferryman, K. S., Popkin, S. J., and Rendón, M., 2008, Why Did the Moving to Opportunity Experiment Not Get Young People into Better Schools?, 『Housing Policy Debate』, 19(1), pp.53-91.
- Chetty, R., Hendren, N., & Katz, L. F., 2016, The effects of exposure to better neighborhoods on children: New evidence from the moving to opportunity experiment, 『American Economic Review』, 106(4), pp.855-902.
- Galster, G. C., 2011, The mechanism (s) of neighbourhood effects: Theory, evidence, and policy implications. In Neighbourhood effects research: New perspectives, pp.23-56.
- Galster, G. C. and Killen, S. P., 1995, The geography of metropolitan opportunity: A reconnaissance and conceptual framework, 『Housing Policy Debate』, 6(1), pp.7-43.
- Galster, G., & Sharkey, P., 2017, Spatial foundations of inequality: A conceptual model and empirical overview, 『The Russell Sage Foundation Journal of the Social Sciences』, 3(2), pp.1-33.
- Leventhal, T., & Brooks-Gunn, J., 2003, Moving to opportunity: an experimental study of neighborhood effects on mental health,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93(9), pp.1576-1582.
- Lucas, S. R., 2001, Effectively Maintained Inequality: Education Transitions, Track Mobility, and Social Background Effect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6(6), pp.1642-1690.
- Raftery, A. E., & Hout, M., 1993, Maximally maintained inequality: Expansion, reform, and opportunity in Irish education, 1921-75, 『Sociology of education』, pp.41-62.
- Reich, M., Gordon, D. M., & Edwards, R. C., 1973, A theory of labor market segmentation,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pp.359-365.
- Rosenbaum, P. R., & Rubin, D. B., 1983, The central role of the propensity score in observational studies for causal effects, 『Biometrika』, 70(1), pp.41-55.
- Rosenbaum, P. R., & Rubin, D. B., 1985, Constructing a control group using multivariate matched sampling methods that incorporate the propensity score, 『The American Statistician』, 39(1), pp.33-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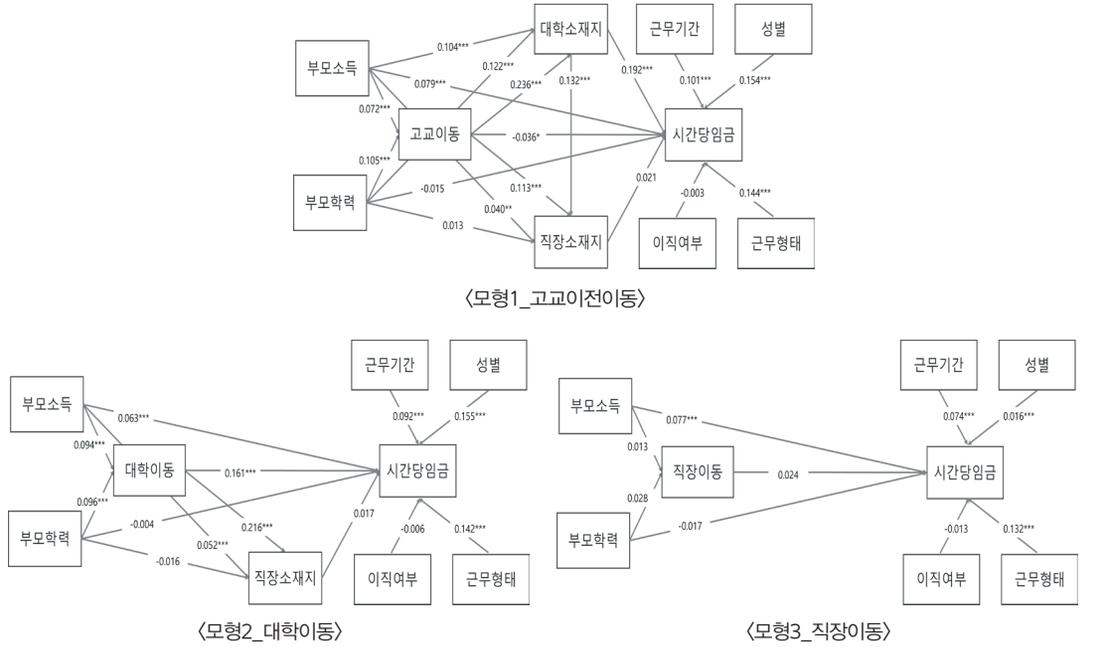
계재신청 2024.07.11

심사일자 2024.09.12

계재확정 2024.09.12

주저자: 최호권, 교신저자: 박인권

[부록]



	모형1_고교이전이동 (n=3,197)			모형2_대학이동 (n=2,969)			모형3_직장이동 (n=3,117)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Total Effect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Total Effect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Total Effect
이동 → 시간당임금	(-)*	(+)**	(+)	(+)**	(+)	(+)**	(+)	.	(+)
이동 → 대학소재지	(+)**	.	(+)**						
이동 → 직장소재지	(+)**	(+)**	(+)**	(+)**	.	(+)**			
대학소재지 → 시간당임금	(+)**	(+)	(+)**						
직장소재지 → 시간당임금	(+)	.	(+)	(+)	.	(+)			
대학소재지 → 직장소재지	(+)**	.	(+)**						
부모소득 → 시간당임금	(+)**	(+)**	(+)**	(+)**	(+)**	(+)**	(+)**	(+)	(+)**
부모소득 → 이동	(+)**	.	(+)**	(+)**	.	(+)**	(+)	.	(+)
부모소득 → 대학소재지	(+)**	(+)**	(+)**						
부모소득 → 직장소재지	(+)**	(+)**	(+)**	(+)**	(+)**	(+)**			
부모학력 → 시간당임금	(-)	(+)**	(+)	(-)	(+)**	(+)	(-)	(+)	(-)
부모학력 → 이동	(+)**	.	(+)**	(+)**	.	(+)**	(+)	.	(+)
부모학력 → 대학소재지	(+)**	(+)**	(+)**						
부모학력 → 직장소재지	(+)	(+)**	(+)**	(-)	(+)**	(+)			
근무기간 → 시간당임금	(+)**	.	(+)**	(+)**	.	(+)**	(+)**	.	(+)**
이직여부 → 시간당임금	(-)	.	(-)	(-)	.	(-)	(-)	.	(-)
성별 → 시간당임금	(+)**	.	(+)**	(+)**	.	(+)**	(+)**	.	(+)**
근무형태 → 시간당임금	(+)**	.	(+)**	(+)**	.	(+)**	(+)**	.	(+)**

1) \* p < 0.10, \*\* p < 0.05, \*\*\* p < 0.01  
 2) 음영처리된 셀은 해당 모형에서 없는 값을 의미함.